

재미나는 표준이야기



바코드,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고요!

책은 물론,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바코드, 이 막대기가 우리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고 있는가

길어진 영업팀의 비상 회의. 저녁 8시 반이 넘어야 겨우 끝나는 바람에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한 표 대리 일행들. "배도 고프는데 매점에 가서 라면이라도 하나씩 먹고 갈까?" 라며 차 대리가 표 대리와 김 주임에게 제안을 한다.

남배를 끊은 이후로 지하 매점에 가본 지 오래된 표 대리는 동료들과 함께 샴은 계란과 사탕면을 골라 계산대 앞에 선다. 주인아주머니가 라면 포장에 붙은 바코드에 리더기를 대자 '뽕'소리와 함께 진산 처리가 된다.

"전부 4천 2백원 이예요. 우리 9시에 문 닫으니까, 빨리들 들어요." 아주머니가 기스름 돈을 돌려주며 말한다. 거스름돈을 받으며 표 대리가 묻는다.

"아주머니, 제가 오랜만에 왔더니, 이제 전자계산기 안 두드리시네요."

"응, 그래요. 이거 몇 주 전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이 빨간불을 갖다 대기만 하면 척척 다 알아서 계산이 되니..." 라며 아주머니가 좋아한다.

"네, 정말 편하게 되셨네요." 표 대리도 웃으며 말하고는 동료들과 라면을 먹은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귀가했다. 그나마 내일이 토요일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삼으며 이내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잔 표 대리는 아침식사 후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대형 서점으로 향했다. 아이들에게 약속한 영어로 된 만화책을 사 주

기 위해서다. 표 대리는 서점에 오면 왠지 항상 기분이 좋아 지고 차분해져 자주 오는 편이다.

아이들에게 약속한 책을 하나씩 골라주고, 표 대리 부부도 각자 읽을 책을 한 권씩 골랐다. 주말 오전인데도 카운터에 사람이 제법 줄을 서고 있어 한참을 기다렸다. "다 함께 넣어 드릴까요?" 라며 친절함 점원이 묻고는 각 책마다 뒷면에 있는 바코드에 리더기를 대더니 "전부 4만 2천 9백 원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바코드와 리더기로 인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빠른 분류, 유통 구조를 구축, 표준화로 인해 누릴 수 있는 편리한 세상

표 대리는 카운터에서 계산중인 직원들이 하나 같이 책 뒷면의 바코드를 리더기로 계산하는 모습을 잠시 동안 물끄러미 바라본다. 옆에 있던 아내가 "여보, 뭐해? 안가?"하며 표 대리의 팔을 살짝 잡으며 묻는다.

"응, 가야지." 계산된 책들을 받아 든 표 대리는 한 권을 꺼내 뒷면의 바코드를 유심히 살핀다. 그리고는 다른 한권을 꺼내 보고, 잠시 후 또 한 권을 꺼내 보기를 반복하다 말한다.

"이 책 세 권은 모두 ISBN 89로 시작을 하는데, 준이 만화책은 ISBN 0으로 시작을 하네." "바코드마다 무슨 기호가 있는 거겠지. 얼른 가자." 양쪽에 아이들 손을 잡은 아내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동안 신사복 차림의 서점 매니저가 다가와 묻는다.

"고객님, 혹시 구입하신 책들에 무슨 문세라도 있으십니까?"

"아, 아닙니다. 그냥 책 뒤에 있는 이 바코드 숫자가 달라서요. 뭘 의미할까 궁금해 하고 있었 습니다." 표 내리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을 하자, 매니저가 바로 설명해 준다.

"그 ISBN과 13자리 숫자들은 국제표준 도서번호입니다. ISBN 바로 뒤에 오는 숫자가 국가 코드이고요. 89는 우리 한국에서 발간된 책이라는 걸 의미하죠. ISBN은 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며 친절하고 쉽게 표 내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었다.



"아~, 그래서 우리말 책인 이 세 권은 89로 시작하는군요. 그런 0으로 시작하는 이 영어 만화책은..." 표 내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매니저가 바로 대답한다.

"그건 미국의 국가 코드입니다. 일본은 47이고요."

듣고 있던 준이가 표 내리의 손에서 책을 한권 뺀어 들고는 바코드를 만져보며 말한다. "그럼 이게 이 책의 주민등록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준이의 말에 매니저가 크게 웃으며 말한다. "하하하, 그래, 그런 셈이지. 그럼, 미국에서 태어난 이 만화책 새끼있게 읽이라." 매니저는 준이의 비리를 한 번 쓰다듬고는 다시 가던 길로 간다.



서점을 나와 장을 보기 위해 할인마트에 간 표 내리가족은 마트 안에서 패스트푸드로 점심을 먹고 식료품 등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해 계산대 앞에 섰다. 이번에는 점원이 리더기를 제품 바코드에 바짝 가져다 대는 것이 아니라, 계산대 안에 부착된 리더기 위로 제품을 스치듯 살짝 통과만 시켰다.

계산을 다 마치고 집에 오면서 표 내리는 아내에게 말한다.

"여보, 어제 회사 지하 매장에 갔더니, 항상 계산기 두드리며 실수도 하시던 주인아주머니가 바코드 리더기로 능숙하게 계산 처리를 하시더라고. 그런 구멍가게에서도 말이야."

"당신 오늘 바코드에 웬 관심을 그렇게 가져?" 라고 아내가 문자 표 내리가 웃으며 대답한다.

"서점에서 본 국제표준 도서번호도 그렇고, 이렇게 대형 마트는 물론 동네 구멍가게까지 바코드가 사용되는 걸 보니 갑자기 바코드에 대해 궁금해져서 그런 거야." 이 말에 아내도 궁금해진 양 얘기를 한다.

"아까 표준 도서번호 바코드처럼, 물건마다 붙어있는 이 바코드들의 숫자들도 등록번호란 거겠지? 당신 말대로 구멍가게에서도 바코드를 이용해 어려움 없이 편하게 빨리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걸 보면, 이러한 표준들로 인해 일상생활이 누구에게나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 안그래?" ♣

[표준 TIP]

바코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상 속 국제표준입니다.

바코드의 원조는 미국입니다. 1973년 미국 슈퍼마켓특별위원회가 세계상품코드(UPC)를 식료품업계 표준으로 제정하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UPC가 북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이용되자 이에 자극받은 유럽의 12 국가들이 모여 13자리로 된 EAN(European Article Number)코드와 심벌을 채택하게 되고 사실상 국제표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EAN에 가입해 국가코드 880번을 부여받았고, 한국유통상품코드(KAN) 제계를 확정해 현재는 한국유통정보센터에서 각 제조업체 코드를 등록하여 상품에 바코드 심벌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44, 55는 없는 사이즈라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44사이즈 열풍에 흔들리지 말자!
내 체형에 맞는 편안한 기성복들을 다양한 치수로 만나게 될 것이다

곧 아내의 생일이다. 표 대리는 며칠 전에 보았던 TV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입은 예쁜 원피스를 떠올렸다. 몸에 달라붙는 여성스런 라인에 큼직한 기하학적 패턴이 세련되어 보이는 원피스였다. 아내는 TV를 보면서 두 번씩이나 그 원피스가 예쁘다고 했었다. '그래. 큰 맘 먹고, 그 원피스를 선물하는 거야!'

옷 잘 입고 잘 꾸미기로 소문난 입사 1년차 각쟁이 예 민혜에게 도움을 청해 보기로 하고, 그녀의 자리로 가 카페 한 잔 마시자며 불러냈다.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아 주며 표 대리가 쉽지 않게 말문을 연다.

"저기 말야... 민혜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며칠 후엔 곧 아내 생일인데 말이야, 선물해 주고 싶은 원피스가 있거든. 실은 얼마 전 TV 드라마에서 봤던 건데, 난 그 드라마 이름도 모르고 심지어 그걸 입었던 여 주인공 이름도 몰라. 아내가 예쁘다며 갖고 싶어 했던 그 원피스가 어떤 브랜드 제품이고 어디에서 살 수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없을까?"

표 대리의 얘기를 들은 예 민혜, "음..., 글썄요."라며 눈동자를 천천히 굴리더니 잠시 후 방법이 떠올랐는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요즘은 드라마 속 주인공 의상이나 스타일이 급방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곤 하니까, 웹 검색으로 한 번 알아봐야겠네요. 아니면 그 드라마

다시보기를 해서 직접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 드라마를 본 게 월요일이야. 밤 10시부터 하는 드라마였던 것 같아...,"라며 예 민혜의 말에 표 대리가 생각을 너듬너듬 말해 주었다.

점심시간 동안 예 민혜는 표 대리가 원하는 원피스를 찾아냈다.

"이거 맞죠? 표 대리님. 이 원피스 다행히 국내 브랜드 제품예요. 디자인도 예쁘게 비해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네요."

예 민혜가 자신의 PC 모니터에 뜬 원피스를 보이며 표 대리에게 문자 깜짝 놀란다. 자신이 해준 말만 가지고 원피스를 찾아내 화면으로 보여주는 예 민혜의 능력이 정말 놀라웠다.

"으..응, 그래, 맞아, 이거야 민혜씨.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금방 찾아낸 거야? 이 사진은 또 어떻게 구한 거고?"

표 대리가 놀라움 반, 기쁨 반의 표정으로 묻자,

"간단해요. 인기 있는 드라마의 경우, 몇 회 무슨 장면에서 누가 입었던 옷이 어떤 브랜드의 옷인지 검색을 통해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도 있고요. 드라마를 인세 봤는지 말씀해 주셨으니, 제가 그냥 방송 3사 월화 드라마 중에 금방 찾아낸 거죠. 살짝 다시보기 했더니 그 원피스가 초반부에 나오더라고요. 다행이 월화 드라마 3편 중 두 편이 사극이라 10분도 채 안 걸렸답니다. 이 브랜드가, 드라마의 메인 스폰서더라고요. 호호."라며 예 민혜가 의기양양해 한다.

표 대리와 예 민혜의 대화를 듣고 있던 새택 조 대리가 끼어든다.

"인터넷이라는 매체로 못 하는 게 없잖아요. 요즘은 많은 브랜드들이 홈페이지에 웹 카탈로그도 올려 놓는 걸요. 아예 온라인 쇼룸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있고요. 사이즈 알면 아예 인터넷으로 주문하는게 편하죠. 매장 찾아 나갈 것도 없으니까요. 표 대리님 부인, 예전에 얼핏 보니까 꽤 날씬하시던데, 그냥 55사이즈 입으시면 맞지 않을까요?"



의류치수 표기법은 다양한 우리 국민의 체형과 사이즈를 반영해 새로 개정됐다



현재 쓰이지 않는 44, 55, 66 사이즈

아내의 사이즈가 뭔지 잘 모르는 표 대리, "사실 예전에 연애할 땐 아내가 굉장히 마른 체형이었어. 숙녀복 가장 작은 치수를 입는다고 했었거든? 지금도 그 때와 비슷하니까, 제일 작은 치수면 될 거야."라며 표 대리가 대답하자, "그럼 44 사이즈네요. 44사이즈는 허리가 24인치 이하여야 맞을 텐데.... 10년 전보단 사이즈가 좀 커지지 않았을까요?" 예 민혜가 고개를 갸우뚱 하며 말했다.

아내의 치수를 몰라 난감해진 표 대리, 갑자기 지난 번 방문했던 인체표준정보실이 떠올랐다. 얼핏 '의류제품 치수 표준화'라는 말을 봤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

"아, 민혜씨, 그리고 조 대리도 이거 한 번 봐봐. '사이즈 코리아'라고 인체표준정보 홈페이지인데, 여기서 내가 의류치수를 본 것 같아." 예 민혜와 조 대리가 표 대리의 자리로 와 함께 '사이즈 코리아' 홈페이지를 본다.

"아, 여기 있네요. 메인 화면에, 이제 의류치수 관련 KS규격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민혜의 말대로 하니 의류치수 정보가 종류별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성인여성복을 종류별로 찾아보아도 44니, 55니 하는 사이즈는 언급조차 없자 예 민혜가 말을 한다.

"표 대리님, 여기 치수 검색 코너가 있어요. 어, 그런데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둘레를 다 알아야 입력할 수 있네요." 고개를 저으며 예 민혜가 다시 말을 꺼낸다. "안 되겠어요. 제가 여기로 전화를 해볼게요. 물어보면 상세히 가르쳐 줄 것 같은데요."라고 하고는 본인의 자리로 가더니 인체표준정보실에 진화를 건다. 꽤 한참 통화를 하고 나서는 양 어깨를 으쓱 하는 제스처를 해 보이며,

"우리가 알고 있는 44, 55, 66 이거 모두 지금은 쓰이지 않는 치수라고 하네요. 80년대에 쓰이다가 이미 99년부터 없는 규격이 됐다는데.... 오

히려 소비자들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 가슴둘레-엉덩이둘레-키 등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성복들 태그(tag)을 보면 그렇게 표기하고들 있잖아요, 쏘 대리님. 우리도 말로만 44, 55 이라는 거지. 흠~, 여하튼 의류제품치수가 이제 체형별로 다양하게 표기하도록 바뀌었다고 해요. '기술표준원'에 문의하면 마편 의류치수를 안내해 준다고 하네요."

이 말을 들던 쏘 대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체형별로 치수가 다양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선 훨씬 이득이네. 옷 입은 모양도 더 예뻐 보일 테고, 아무래도 체형에 잘 맞으면 더 편할 것 아냐."
표 대리, 아무래도 아내에게 직접 치수를 물어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말한다.
"참, 두 여성분도 신체 사이즈랑 체형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인체표준정보실에 직접 한번 가봐. 난 이미 다녀왔거든." ♣

표준 TIP

의류제품치수 개정과 표준화

의류는 매일 우리가 몸에 직접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한 착용감이나 입은 맵시가 신체 사이즈와 체형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사이즈 코리아' 인체측정사업을 통해 한국인의 체형이 키지고 길어지고 있으며 그 체형분류 또한 4가지 대표 체형군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체형과 사이즈를 가진 우리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몸에 편안하고 잘 맞는 옷을 입고 스타일 만족도 또한 높이기 위해 기술표준원에서는 의류제품치수를 좀 더 다양하고 인체 친화적이 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